

중학생 사회수업 시간 가족관계, 호칭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여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셨다. “여기 한 자매가 있는데 한명은 미혼, 한명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때 부모가 돌아가신다면 상주가 누가 될까?” 라고 질문을 기습적으로 하셨다. 15살이었던 우리는 입을 모아 “당연히 장녀겠죠?”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막내인 친구들은 아닐꺼라며 손사래를 치며 “자매끼리 동반 상주맞죠?” 라고 선생님께 되물었다. 이때 선생님의 대답은 어린 나에게 충격이었다. “여자는 상주가 될 수 없으니 5살 조카가 대표 상주가 된단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약 슬하에 조카가 없다면 남편, 즉 사위가 대표 상주가 된다고 하셨다. 따지고 보면 사위는 남남인데 멀쩡히 딸이 살아있는데 왜?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삼켰다.

20년이 지난 지금 난 식물 배송 회사에 근무 하고 있다. 축하화환, 꽃다발, 꽃바구니, 승진할 때 인사치레로 보내는 동양란, 서양란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건 근조화환이다. 근조화환 배송 담당할 때 배송사고를 막기위해 부고장을 확인하고 배송진행을 하고 있다. 부고장 내용을 보면 여전히 딸은 여자라는 이유로 상주로 취급받지 못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문을 요청하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남성부터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심지어 같은 여자들도 당연하게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딸이니까 따지고 보면 상주는 아니지.”

“받는분에 기재한 이름은 따님분 성함이고, 상주님은 따로 있어요.”

황당하게도 아예 정반대인 경우가 있다. 주문한 고객에게 연락해 받는분에 기입한 성함이 장례식장에 등록되어 있는 상주 명단에 확인되지 않아 정확하게 맞는지 여쭙보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한다.

“사위니까 당연히 상주맞지!”

“손서! 손녀사위니까 당연히 상주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사위든 손자든 어쨌든 남자니까 당연히 상주지!”

모두가 입을 모아 상주라고 칭하고 있었다.

15살 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에 난 마이크로 페미니즘을 실천하기로 했다.

주문자가 “상주는 아니고 딸이에요” 라고 말하면 “네. 따님 상주분 맞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내역서를 <받는분 딸 김영희>에서 <받는분 김영희 상주>로 수정했다. 식물 배송회사에 근무한지 벌써 근무한지 4년차가 되어간다. 4년 동안 성수기 때는 한달 1800건, 비수기 때는 한달 600건 주문내역서를 처리하며 남들에게는 별 것 아니지만 나 혼자 따님을 상주로 계속 수정하며 주문내역서를 처리했다. 그리고 고객과 장례식장측과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주님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다.

또 한가지 수정하는 단어는 미망인이라는 단어이다. 남편이 죽으면 부고장에는 <미망인 김영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인이 죽으면 부고장에는 <배우자 김철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미망인은 ‘아직 죽지 못한 사람’ ‘남편이 죽었는데 따라죽지 않은 사람’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 부분도 고쳐서 주문내역서를 정리하고 있다. <배우자 김영희> <상주 김영희(배우자)>로 말이다. 오히려 중년여성이 나에게 되려 소리를 친 적이 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면서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는거야? 미망인이라고 미망인!”

말에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지금당장 바꿀 수 없지만 지금 나의 자리에서 이렇게라도 조금씩 노력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오늘도 나는 근무를 하면서 딸, 미망인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상주라고 쓴다.